



제니스, 필립스와 협업으로
단일 제작한 플래티넘 소재의 El Primero(엘 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를
필립스의 제네바 시계경매 X에 기부

제니스의 El Primero(엘 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 탄생 5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필립스와 백스앤루소가 특별히 디자인한 이 단일제작 모델은 2019년 11월 9일에서 1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경매에 출품될 것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기념 시계의 경매 수익은 국제소아암단체인 Childhood Cancer International 소속 스위스 비영리단체인 Zoe4Life에 기부하게 된다. 이 특별하고도 단 하나밖에 없는 시계 관련 이벤트는 1969년 제니스가 워치메이킹 사상 최초로 선보인 자동 크로노그래프 출시 50 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한 해에 걸쳐 전세계 5 대륙을 돌며 진행한 제니스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주년 월드 투어의 정점을 찍는 행사이다.

2019년 10월 1일 스위스 제네바 - 제니스는 1년에 걸쳐 진행된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임팩트 있는 행사로 마무리한다. 2019년 11월 8일,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주년 월드 투어의 종착지인 제네바에서 제니스는 필립스와 백스앤루소와 함께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플래티넘 소재의 El Primero(엘 프리메로)로 시계 컬렉터와 El Primero(엘 프리메로) 매니아들을 찾아간다.

경매시장의 리더 필립스가 백스앤루소와 함께 2019년 11월 9일과 10일 제네바의 라 레제르브 호텔에서 개최하는 제네바 시계경매 X에서 소개될 가장 매혹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컬렉터 워치 중에서, 단일 제품으로 제작된 플래티넘 소재의 제니스 El Primero(엘 프리메로)에 단연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크로노그래프 사상 단연 독보적으로 부각되는 배경을 지닌 이 타임피스에는 두 가지 면에서 더욱 특별하다. 필립스와 백스앤루소가 제니스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디자인한 - 세계적인 경매업체 필립스 사상 최초의 일이다 - 단일제작 모델은 50년 전 세계 최초의 자동 크로노미터 제니스 El Primero(엘 프리메로)의 출시를 기념하는 제품으로, 이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A386을 놀라운 시각으로 해석해 주었다. 이번 단일제작 제품은 El Primero(엘 프리메로) 사상 처음으로 PT 950 플래티넘으로 제작되었다.

제니스 사상 최초는 이번만이 아니다. 빈티지 터치의 유니크하고도 고급스러운 다이얼은 골드 조각이 흩뿌려진 강렬한 블루 컬러의 스톤인 라피스 라줄리 소재이며, 스트랩은 송아지가죽으로 만들어 우아한 단순미를 추구하였다. 또한 50년 국제품질보증이 제공됨으로써, 오랜 세월 입증된 El Primero(엘 프리메로)의 견고함과 신뢰도를 재천명하고 있다. 그 결과 시계 매니아, 애호가, 컬렉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것이 분명한 매혹적인 비주얼의 시계가 탄생하였다.

“이 모델은 최초의,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플래티넘 El Primero(엘 프리메로)가 될 것입니다.”라고 줄리엔 토나르 제니스 최고경영자는 말한다. “따라서 시간 측정의 정확도를 추구함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제품을 기념하기에 매우 적절한 모델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PHILLIPS

IN ASSOCIATION WITH

BACS & RUSSO



“필립스의 전문가 및 제니스의 팀과 함께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창조적이고 동시대적이며 독보적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라고 **백스앤루소의 아우렐 백스 선임 컨설턴트**는 말한다. 그리고 “그 결과 시계공학 사상 하나의 이정표가 된 El Primero(엘 프리메로)에 매우 어울리는 모델이 탄생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기념 시계의 경매 수익은 국제소아암단체인 Childhood Cancer International 소속 스위스 비영리단체인 Zoe4Life 에 기부되므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플라티넘 El Primero(엘 프리메로)는 경매 전달인 11월 8일 제네바 라 레제르브에서 개최되는 특별 행사에서 공개되는데, 이는 1969년 제니스가 워치메이킹 사상 최초로 선보인 자동 크로노그래프 출시 5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한 해에 걸쳐 전세계 5대륙을 순회하며 진행한 제니스 El Primero(엘 프리메로) 50주년 월드 투어의 하일라이트가 될 것이다.

시계 전시 기간: 2019년 11월 7일에서 10일까지 - 라 레제르브 호텔 - 제네바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독보적인 자체 개발 및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한다. 최고 수준의 기술적 공정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실리콘 오실레이터가 장착된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 100분의 1 초 단위 측정 고주파수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에로 21) 등이 좋은 예이다. 1865년 창사 이래 제니스는 항공의 초창기에 선보인 “파일럿 워치”와 사상 최초로 양산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에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도와 혁신의 개념을 끊임없이 경신해 왔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제니스는 성능의 새로운 기준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 독보적인 전설의 새 장을 쓰고 있다. 제니스는 시간 자체에 도전장을 내고 별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대담한 이들과 함께,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상세 정보: www.zenith-watches.com

필립스와 백스앤루소 콜라보레이션 소개

필립스 시계의 전문가들은 품질, 투명성, 고객 서비스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2018년 1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3년 연속 시계 경매 시장의 세계 1위의 입지를 지켰다. 최근 기록을 경신한 경매가를 몇 가지 들여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폴 뉴먼의 Rolex “Paul Newman” Daytona(롤렉스 “폴 뉴먼” 데이토나), 제품번호 6239(CHF 17,709,894/US\$17,752,500) - 뉴욕 경매: Winning Icons(승리하는 아이콘) - 2017년 10월 26일 - 경매사상 손목시계 낙찰가 최고가.
2. Patek Philippe(파텍 필립), 제품번호 1518, 스테인레스 스틸(CHF 11,020,000 /US\$11,112,020) - 제네바 시계 경매: FOUR(포) - 2016년 11월 12일 - Patek Philippe(파텍 필립) 손목시계 경매사상 최고 낙찰가.

필립스 소개

필립스는 20세기 및 21세기 미술과 디자인의 글로벌 매매 플랫폼이다. 20세기 및 동시대 미술, 디자인, 사진, 서적, 시계, 주얼리 분야에 전담 전문인력을 보유한 필립스는 컬렉션의 모든 측면에 대해 프로페셔널한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한다. 경매 및 전시는 뉴욕, 런던, 제네바, 홍콩의 판매소에서 이루어지며, 유럽, 미국, 아시아 전역에 분포한 대표사무소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립스는 또한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필립스는 경매를 통한 매매 기회 뿐 아니라 개별 판매도 중개하며, 평가, 감정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 정보 조회: www.phillips.com

Zoé4life 소개

Zoé4life는 공익 단체 인정을 받은 등록 비영리기구이다. Zoé4life의 임무는 연구 및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 치료 기간 중 아동 지원, 소아암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다. 모든 기부금에는 세금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상세정보: www.zoe4life.org

언론사 연락처

제니스
Minh-Tan-Bui
minh-tan.bui@zenith-watches.com
전화 +41 79 515 47 54

필립스와 백스앤루소
Asta Ponzio
aponzo@phillips.com
전화 +41 79 961 85 66